

# '팔레스타인의 비극'...종로 호소

“매일 아이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반복돼”

“언론에 의문 갖고 진실에 대해 묻길바라”

“이스라엘과 FTA 파기하고 금수조치해야”

시민단체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 교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어린이 63명과 여성 36명 등 최소 21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153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팔레스타인인 키리아씨는 “오늘 우리는 인류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외면하는 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따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스라

엘이 행하는 가혹행위를 듣는다”며 “우리의 가족과 친척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집이 하나 더 폭파되고 다른 가족이 추방당하고 다른 아이들이 죽고 납치됐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들은 내게 뉴스를 그만 읽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충고해 주지만 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팔레스타인과 연대해달라”며 “언론의 이야기에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묻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단법인 아디 이동화 활동가는 “이 일을 보고 하마스의 로켓공격으로 일어난 하마스나 이스라엘의 총돌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지금 피해를 보는 곳은 병원, 학교, 방송국 등인데



이게 어떻게 방어전이나”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우리도 우리의 평화 안전을 위해서 싸웠던만큼 팔레스타인 저항에 대해서도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활동가는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후 12일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고 이를 홍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인권과 평화는 한반도 국경에 멈춰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

가 이스라엘과 FTA를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금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스라엘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를 계속 공습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로켓포 사격을 날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에서의 군사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

기동취재본부

## 광주 동부소방, 노후아파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최근 산수동에 위치한 노후아파트 38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0명이 참여한 이번 설치지원은 불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노후된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선정해 진행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및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정식 동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으로 정한 의무이기 전에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담양소방, 임야화재 저감위한 관내 농업기술센터 MOU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담양군·곡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응원 협정 맺어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금지 등 임야화재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 하였다.

이번 추진 내용은 담양소방서 자체특수 시책 중 하나로 ‘농업기술센터 MOU 체결 “임야화재 철동방어!”’이며, 그간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영농인들이 안전의식 부재하여 소각행위가 계속 발생됨으로써, 그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 되었다.

이에 따라 담양소방서는 관내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임야화재 시 신속한 정보제공 등 초동 조치 협력 ▶임대용 농기계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트랙터, 다목적운반차 활용 홍보용 랩핑필름 부착 등을 추진 했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지금처럼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완도해경, 대형 해상퍼레이드 안전관리 철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완도 어업인들이 완도항 일원에서 육상집회와 해상퍼레이드 개최 관련 선제적 안전관리를 펼쳐 사고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어업인 150여명이 완도항에 모여 육상집회를 시작으로 완도군 어선연합회 등 어민단체 소속 어선 총 60여척을 동원한 해상퍼레이드를 실시했다.

이번 해상퍼레이드는 해상에서 집결하는 것이 아닌 출항 후 바로 선두를 따라서 주도 앞 해상에서 선회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행사 전 유관기관간 안전관리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고,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해경구조대 구조정을 해상배치하여 어선 60여척이 동원된 대형 해상퍼레이드 임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주박 등 우발상황 없이 해상퍼레이드가 안전하게 진행됐다”며 “합법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 광양소방,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공사장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화재 예방 컨설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형공사장과 특정소방대상물(1급, 2급)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2일 전 사전 신고토록 안내문을 배부해 화재 예방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운영내용으로는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비롯해 용접용단 안전 매뉴얼 배부,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임시 소방시설 안내(매뉴얼 보급)와 위험물 안전관리 확인, 공사 관계인 안전교육 등이 있다고 전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 “한마리 남은 여수박람회장 벨루가, 바다로 돌려보내라”

여수환경운동연합·동물자유연대 등 조건없는 방류 촉구



전남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의 한화아쿠아플라넷에 전시 중이던 벨루가 3마리 중 2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남은 한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여수 한화아쿠아플라넷 앞에서 집회를 열어 남아있는 암컷 벨루가 '루비'의 조건 없는 방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화 아쿠아플라넷 벨루가가 또 폐사했다”면서 “작년 7월20일 수컷 벨루가 '루이'가 죽은 뒤 불과 10개월 만이고, 1년 사이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죽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여수 아쿠아플라넷에는 암컷 벨루가 '루비' 한 마리만 남았다”며 “남은 한 마리를 폐사하기 전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벨루가의 수명이 30년인데 폐사한 여수의 벨루가 '루이'와 '루오'는 12년에 그쳤다”면서 “같은 시설의 세 마리 중 2마리가 폐사한 것은 수족관 생활이 벨루가에겐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단체회원들은 “살아있는 마지막 한 마리 '루비'의 생존을 위해 방류 대책이 절실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방

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흰고래 벨루가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기점으로 박람회 내 한화아쿠아플라넷에 전시 중이었다. 3마리 중 지난해 7월 수컷 루이가 폐사한 이후 10개월 만에 수컷 벨루가 '루오'가 어린날인 5일 폐사했다.

수컷 벨루가 루오의 사인에 대한 1차 소견은 장염전증(장꼬임)으로 알려졌다. 추후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의 벨루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반입됐다. 회귀종 보존과 해양생태 연구 목적으로 한국에 도착했으며, 지난 10여년 간 아쿠아플라넷 벨루가 수조에 전시됐다. 동그란 이마와 웃는 얼굴 모양 등으로 관람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